

01 교회소식

영혼을 살리는 교회

손수건을 통한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몽골 선교와 든든한 전도 파트너가 될 '만민간증' 앱 관련 소식.

02 생명의 말씀

참마음을 이루려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참마음을 이루려면 거짓과 변개함이 없어야 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03 기획특집

겸손한 사람의 특징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서 존귀케 되고 천국에서도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04 간증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각막염 치료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정성현 자매와 견관절 석회를 치료받은 프랑스 자넷 두브레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92호 2017년 6월 1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몽골 울란바토르 각 지교회에서 손수건 집회 열려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것처럼(행 19:11~12),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전 세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5월, 라마불교가 국교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이행엽 목사(여수만민교회 담임, 사진 1)를 강사로 지교회 손수건 집회가 있었다.

5월 19일 저녁, 울란바토르만민교회(담임 양흐비야르 간바타르 선교사) 집회 시 이행엽 목사는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성도들에게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 그러자 두 다리 통증으로 앉고 일어설 수 없었던 바담가랍 성도가 즉시 통증이 사라져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고, 심한 허리 통증으로 눕거나 일어나지 못했던 체제계 집사는 성령의 불을 받아 순간에



통증이 사라졌다. 이 외에도 많은 성도가 고혈압, 편마비, 보행장애 등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사진 4, 6).
21일 오전 몽골만민교회(담임 발저릭 푸레브 선교사) 창립 14주년 기념예배에서 이행엽 목

사는 '심고 거두는 법칙'(고후 9:6~8)을 설교했고, 오후 손수건 집회 시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은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보행장애, 관절염, 허리디스크, 고혈압,

편마비, 심장 및 폐질환 등 각색 질병이 치료되었으며, 여러 성도들의 시력이 회복되어 많은 성도가 간증하였다(사진 2, 7~9).
22일 오전에는 타교회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만민의 사역에 대

해 전했으며(사진 3), 20일과 22일 오후에는 각 교회 일꾼과 성도들을 만나 상담했다. 한편,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의 파워풀한 특송은 참석한 이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은혜와 감동을 더했다(사진 5).

'만민간증' 앱으로, 전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진솔한 간증을 토대로 전도를 돕기 위해 제작된 '만민간증' 모바일 앱이 지난 5월 22일에 선보였다.
이 앱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 용이하게 권능의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성도들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미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치료 간증이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무엇보다 즉석에서 전도 대상자와 함께 사진과 캡션을

넘기며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체장애, 아토피, 피부병, 화상, 불임, 자폐증, 다운증후군, 심근경색, 뇌출혈, 결핵, 시력, 청력, 하라다병, 사시, 고관절농양, 뇌종양, 교통사고, 어깨탈골, 분쇄골절,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성대폴립, 복막염, 요로결석, 양막파열 등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한 다양한 치료사례가 담겨 있다.
누구든지 손쉽게 '병명'이나 '이름'을 검색해 간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상단 맨 오른

쪽 버튼을 터치하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을 수 있다. '만민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려면 Play스토어 검색창에서 '만민간증'을 입력한 후 '만민간증' 앱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만민전도화보집' 앱, 'WCDN' 앱, '만민중앙교회' 앱, 'GCN방송' 앱, '만민찬양' 앱을 함께 활용하여 소중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삶 속에 실천해 보기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참마음을 이루려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22)

받은 뒤 확인하지도 않고 보고한다면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의 보고가 틀려서 정정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말하기가 민망하여 ‘다 지난 일인데 뭐!’ 하고 넘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면 너무나 세상의 죄악에 무뎠진 모습이지요.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은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동안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떠올라 다음에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침 이때 뒷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해 질문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그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니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면 진실한 답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은 일을 과장해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참마음을 이루고자 늘 기도하되 힘써며 순간순간 자신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조금이라도 진실치 못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불같이 기도해 신속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곧은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그것이 진리이며 옳다고 깨달았으면 한번 믿은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지요. 마음에 정하고 결단한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지켜야 합니다.

‘변개함’은 욕의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

랑에 오염하다가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큰 재앙에서 건짐받고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혹은 양 떼를 위해 생명 다해 희생하는 목자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하며 영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고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스스로 지치고 낙심한다면 이는 참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한 대로 자기 안에 변개함이 없는 만큼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고 목자의 사랑도 변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아 변개함이 있다면, 이제라도 마음에 정한 것을 지키며 변개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예컨대 ‘기도하라.’ 했다가도 변개함이 있으면 조금씩 시간을 채우지 못하다가 결국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이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 꾸준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변개한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깨달으면 또 다시 시작해서 결국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에 참석해 은혜를 받아야겠다.’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꼭 가야 하나? 거기서 사명을 맡은 것도 아니고 할 일도 있는데...’ 했다면 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곳에 가면 됩니다. ‘구제를 해야겠다.’ 마음먹었다가도 막상 자신의 형편을 보고 망설였다면 이것도 처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지요. 이렇게 행함으로 간사함과 변개함을 벗어나가면 신속히 참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24절에 “모든 것

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좇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신념이나 가치관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패륜적인 일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파선하여 바다를 표류하기도 하고,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들에게 위협을 받았지요. 지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편하고 안전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보장해 주십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선물로 주시며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고전 10:31), 상대의 유익을 구할 때 비로소 참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마음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불같은 기도와 말씀 무장에 힘써야 참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마음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져야 합니다(딤후 4:5).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요일 3:21~22).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마음을 이루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참마음을 이루려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부지불식중에 거짓말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혹여 확인하지 않은 일을 확실한 일처럼 전하거나 뒷사람에게 보고하지는 않나요? 자기 생각 속에서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말해놓고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진실이 없는 만큼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출석 인원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셨다(마 18:4, 23:11).
마음이 솜털과 같아서 어떠한 것이라도 포용하니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본다.



POINT 1. 입술의 말이 겸손하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을 말한다.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그 입술의 말도 겸손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말로만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지식의 잣대로 판단하여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할 줄 안다. 혹여 자신의 기준에서는 옳지 않다 해도 상대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뿐, 그 자리에서 상대의 말이 그르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만일 나보다 어린 사람이 지적한다 해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당장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 해도 권면하는 말에 “아멘!” 하며 깨우쳐 변화되고자 한다면 고운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이 분명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말로써 그 불편한 마음을 쏟아낸다면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우쳐야 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겸손한 말로써 상대의 마음을 편케 해 주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POINT 2. 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섬긴다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직분이 어느 정도 이르렀다 하여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은근히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큰 믿음을 소유할수록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섬기기에 더 승한 행실을 보이기 때문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으며 모든 사람, 곧 죄인들까지 섬기셨다. 순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결국 모든 죄인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온전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과연 주 안에서 겸손한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빌 4:13) 뜨겁게 하나님 일에 앞장서되, 자신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섬김으로써 그들 스스로 뜨거움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순종과 섬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상대의 티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는 마음이 된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니 좋은 점은 열심히 배우려 하고, 설령 상대가 잘못했다라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할 뿐이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으니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과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POINT 3. 하나님과 주님, 영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은혜에 늘 감사해한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큰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었지만 항상 겸손하여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 이처럼 사도 바울의 중심에서 늘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

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신 은혜를 그는 결코 잊지 않았으며, 그러기에 변함없이 더욱 충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받은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때를 좇아 감사의 행함을 보일 줄 알기에 첫사랑을 잃지 않고 그 이상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스스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된다. 늘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때를 좇아 감사의 표현을 행함으로 나타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공간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란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언 18:1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계명 1-4 ■ 전도 1-2
- 사랑장 1-6 ■ 선 14-17
- 성경적 결혼관 1-2 ■ 축복 1
- 마음발을 개간하자 7
- 믿음을 척량하시니 1-7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9-15

GCN TV설교

- 회개에 합당한 열매 1 (이수진 목사)
- 순종의 축복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65 (이희선 목사)
- 욕기 강해 31 (신동초 목사)
- 출애굽과 홍해 사건 (정구영 목사)
-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2 (정리라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2)
- 권능 스페셜 20 ■ 마지막 때 13
- 창조와 과학 17 ■ English 15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8
- 내 마음의 찬양 28
- 모두 드려요 49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2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3

June 6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6.11~6.17

전국 어디서나 **allah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TV**

“실명 위험의 심각한 각막염을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2010년 6월, 생일을 맞아 친구로부터 서클렌즈를 선물받아 착용하였는데 11월쯤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겼지요. 심하게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덩어리째 생겼으며,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자 2011년 1월 말,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전되는 듯싶더니 몇 개월이 지나자 재발되어 두통까지 동반되었지요. 눈이 부신 증상으로 인해 집에서도 불을 끈 채 생활해야 했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심할 때는 눈앞에 있는 사람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이 팔에서부터 목과 얼굴, 다리로 번져 피부와 진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지요.

원인을 찾다 보니 아빠 장로님의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당회장님께서 영적인 끈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질병이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통회자복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아토피성 피부염은 치료되었지요.

그런데 눈의 증세는 여전하였습니다. 2012년 여름,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깜작 놀라며 “균이 시신경 직전까지 침투하여 이대로 가면 실명이 돼요. 약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각막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저는 병원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니 2~3개월 정도 지나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2013년, 예능위원회 아향선교단에 입단하였는데 그해 가을에 눈의 질병이 갑자기 재발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전도사님은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님과 상담한 후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결단하였고, 각막이식 비용을 믿음으로 심고 온 가족이 작정기도와 릴레이 금식으로 회개와 공의를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스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버스를 놓치는 것은 물론 차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고, 손톱도 혼자 깎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



엄마 최성숙 전도사, 성은(작은 언니), 성현, 성결(큰 언니) 자매, 아빠 정택수 장로와 함께 **정성현 자매 (21세, 1청년선교회)**

능하여 가족을 의지해야 했지요.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그토록 좋아했던 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대학 입시 실기시험 당일에도 눈이 아파 실력 발휘를 못하고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사렛성가대와 아향선교단 등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버리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우/0.05)보다 나은 좌우 0.4로 측정되었지요. 할렐루야!

저는 치료받은 뒤 짧은 기간에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여 2017년 3월, 제가 원하던 한국무용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각막염 치료의 체험을 통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도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으로 더욱 변화되어 무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건관절 석회'를 치료받았어요

자넷 두브레이 성도 (56세, 프랑스)

2017년 2월 20일, 저는 업무 중 갑자기 왼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귀가할 때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오른손으로만 운전을 해야 할 정도였지요. 저녁이 되어서는 아예 꼼짝할 수 없었고 왼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어깨관절에 석회가 침착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추이를 지켜보며 몇 주 후에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가서도 증상과 통증이 그대로 나타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병명을 알았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인터넷으로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진행 중인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를 GCN 방송으로 참석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제 모습을 깨우치며 눈물로 회개하였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

고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 다음날에도 간절히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자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났고 통증이 사라져 왼손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 왼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세례로 신속히 치료해 주시며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X-ray 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에 석회 침착 소견이 보였으나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됨.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로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